

# 호남 인프라 구축에 총력 기울이다

### 익산국토청, 도로·하천사업 등 1조 3513억원 규모 업무계획 수립

익산국토관리청은 3일 도로와 하천 사업 등 총 1조 3513억원 규모의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용정-용진을 비롯한 총 51건의 도로 사업에 6천363억원, 만경강 화전지구 정비사업 등 117건의 하천사업에 2,558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고창 해리-부안 등 6건의 도로사업과 3건의 하천사업을 새로이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익산국토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1/4 분기에 전체 SOC 예산의 32.0%(3,779억원) 이상을 집행하고, 상반기까지 61.0%(7,204억원)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도로사업은 경제활력 지원을 위한 경제도로,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안전도로,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도로 건설에 집중한다.

'서·남해안권 개발사업'과 '재만금 종합개발사업' 등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고군산 3 등 10개 사업 2,123억 원을 투입하고, 서남해안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명품 해상교량 건설과 내륙산간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 건설 등 27개 사업(2,123억)도 추진한다.

또한 운영중인 해상교량의 내진성능 보강과 함께 특수교량 피뢰설비 설치 시범사업 실시 등 특수교의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익산국토청 소속 4개 국토사무소를 통해 사고찾은 곳 개선(12개소), 교차로 개선(40개소), 위험도로 개량(20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 기존도로의 안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하천사업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하천 조성'을 목표로 친수 공

간 조성 및 수변 생태 공간 확충 등에 중점을 둔다.

자연과 인간, 생태·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친수형 하천 공간 조성을 위해 1,123억원을 투입해 만경강 신지구 등 2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류하천의 치수능력 증대, 수변 생태·친수 공간 조성 등을 통한 하천 인프라 확충을 위해 313억원(11개 사업)을 투입한다.

또한 새만금사업 지원을 위한 만경, 동진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하천 정비(78개 사업)에도 1,34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담양 드론체험교육장은 콘텐츠를 보완해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만경강 신탐지구에도 완주군과 함께 드론공원을 조성한다.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사전 예방활동 강화와 지속적인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재해취약 시기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건설자재 생산공장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부실 자재의 생산·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안전사고 위험성이 큰 특수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자문(컨설팅) 위원회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호남지역 건설공사 안전실천협의회 운영과 지속적인 건설안전 종사자 교육을 실시, 호남지역 전 건설현장에 안전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하대성 익산국토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나 신규사업 발굴 등에 있어서 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예정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농협상호금융 대출 200조원 달성 유공조합 공로패를 수상한 북전주농협과 남부안농협은 농협중앙회 회장 공로패를 수상했다.

## 농협상호금융 대출 200조원 달성 북전주·남부안농협, 공로패 수상

전북농협은 정례조회에서 농협상호금융 대출 200조원 달성에 기여한 농협에 대한 공로패와 2016년 상호금융 통합프로모션 마케팅 우수농협에 대한 시상과 부상을 전달했다.

상호금융 대출 200조원 달성 유공 조합 공로패를 수상한 북전주농협과 남부안농협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 대출 적기지원과 건전여신 추진에 앞장서고 햇살론 등 서민금융에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농협중앙회 회장 공로패를 수여 받았다.

지난해 전북농협 마케팅 우수농

협에 선정된 전주농협, 구이농협, 고창농협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경영으로 지역농축협 사업추진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역본부 챔피언 트로피와 부상으로 여형상품권을 전달 받았다.

강태호 본부장은 "지역 농축협이 상호금융사업으로 농업인 및 지역민을 위한 대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지역 농축협의 지속성장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고객에게 지역 최고 농협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안재용 기자

### 주영섭 중기청장, 전북 방문 소통행정 펼쳐

## 도내 창업기업과의 간담회·수출기업·전통시장 방문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4일 전북지역을 방문해 창업기업과 수출기업을 격려했고 전통시장에서 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설명 및 이후 본격적인 현장행보를 통한 소통행정을 실시했다.

평소 주 청장은 잘짜여진 정부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고, 필요한 곳에 정책이 지원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는데 지난 1월에 각 분야별 업무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2월부터는 집무실이 아닌 정책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소통 행정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먼저, 도내 선도대학과 창업보육센터 등에 입주한 기술창업기업 대표자

(7명)와 조찬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 청장은 간담회에서 "창업기업과 같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우수한 지역기업에 대해 지방청을 중심으로 밀착관리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육성을 할 계획"이라며 "기업 대표자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시 개선하고, 정책입안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익산지역 수출기업인 (주)티앤지를 방문해 "지금은 FTA 등으로 내수시장에서도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수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중소기업이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수출, R&D 등 모든 정책의 초점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화'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도 R&D 투자와 수출 확대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익산북부시장과 익산장을 방문해 설명 및 민생경기를 점검하고 익산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를 청취했다.

주 청장은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바로미터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며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지자체와 상인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에 대해, "전통시장은 화재발생시 피해가 크고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화재예방에 최우선적인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주영섭 청장은 평소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시하고, '현장과 디테일'이 답이라는 신념하에, 모든 정책의 집행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 점검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등 정책실행시스템을 활용한 소통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안재용 기자

### 전북銀장학문화재단, 만학도 장학금 전달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3일 오전 10시 전북도립여성성고등학교에서 2017 만학도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김영구 이사장, 전북은행 이정영 부행장, 김승환 교육감, 김일재 행정부지사, 정동영 국회의원 등이 참

석했다.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뒤늦게 배움의 기회를 다시 찾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에 합격하고도 진학을 망설이는 만학도를 돕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 조달청, 새만금 산단 6공구 매립공사 등 32건 입찰

조달청은 이번주에 한국농어촌공사 수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6공구 매립공사' 등 총 32건, 1590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주 집행되는 입찰은 집행건수의 약 78%(25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외 공동도급 대상공사다.

전체의 약 41%인 651억 원 상당의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15건, 398억원이다.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지역외 공동도급공사는 10건, 517억원이다. /안재용 기자

### 캠코, 전북지역 압류재산 35건 공매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는 6일부터 8일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15억 원 규모, 총 35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공매는 전북도민에게 유리한 공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매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가 진행하는 주요 공매물건에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아파트와 임실군 신평면 소재 공장, 전주시 덕진구 소

재 아파트 등이 있다.

공매 참여 시 입찰자 현황 등 권리 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미 공고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온비드(On-Bid)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 전북농협,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개최

전북농협은 3일 대강당에서 강태호 본부장, 범농협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농협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농협 임직원들은 협동과 혁신을 통한 정도경영으로 '농심이 살아있는 농협, 농업인이 행복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을 구현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전임직원은 2017년을 윤리경영 쇄신 원년으로 삼아 잘못된 관행 타파와 조직문화 혁신, 법령과 규정, 임직원행동강령의 준수를 통한 준법경영, '청탁금지법'의 준수로 부패근절, 예산의 투명한 집행 등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안재용 기자

## 부안으로

## 마실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 扶來滿福